

“DJ정신 이어 통합·화합 길 걸겠다”

여야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고인을 회고하며 큰 정치인이었던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고 추모했다.

이날 DJ 11주기 추도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이날 추도식은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최소화해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님은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는 원칙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 말이 제 인생 나침반이 되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 민주주의, 인권, 복지, 평화는 우리 가슴에 살아 있다”며 “역사는 정의의 편이고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대통령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다. 큰 정치인 DJ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빛났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고인을 기렸다.

여야, 서울현충원서 11주기 추도식 개최 박병석·정세균 비롯 여야 정치인 참석



박병석(앞줄 오른쪽부터)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인은 오랜 세월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시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으셨다”며 “추운 겨울에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의 해로운 독을 풀어주는 인동초의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추도식을 진행한 함세웅 신부의 요청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연단에 섰다. 김 위원장은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며 “각자가 서로 겸허한 자세

를 가졌을 때 가능하다.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통합·화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통합·화합 요구와 관련해 “좋은 말씀”이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하나씩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종인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도 자리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원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추모회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 테크센터에서 수업에 사용할 태블릿PC를 수령한 뒤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일일 학생’ 변신한 文대통령 “미래의 부동산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시범 학교로 불리는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찾아 ‘일일 학생’으로 변신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학교 공간을 뜻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저탄소·제로에너지를 지향하며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휴식 공간을 확신하고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8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친환경 환경에 맞게 고쳐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찾은 창덕여중은 2015년부터 전과목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의 모델이 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일 학생’으로 변신해 개학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교육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태블릿PC등을 관리하는 테크센터에서 수업에 사용할 태블릿을 수령한 뒤, 학습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수학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사는 “대통령님은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이 재밌으셨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아이고, 잘 못했”이라고 말하면서 일동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수업 도중에는 ‘미래’에 대한 이슈도 다뤄졌다. ‘미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제일의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다”고 답하면서 현 부동산 이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자 해당 교사가 “저도 관심이 많다.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변화를 관찰해 패턴을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사회적 현상이나 경제적 현상도 분석되는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이어서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AR)를 통해 이용한 과학 수업이 진행됐다. 몸 안의 심장을 AR을 이용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문 대통령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심장을 들여다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과학 전 분야에 다 준비됐는가”, “학교 선생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다 보급이 됐는가” 등을 물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현장 참석했고, 15개 시도교육감은 화상 연결됐다.

간담회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추진이 재밌으셨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아이고, 잘 못했”이라고 말하면서 일동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희재 의원 ‘여순사건 유가족 한분 한분 눈물 모두 닦아드릴 것’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공동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의 과정, 원내정책회의에서의 당론 채택 강조,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152명의 명단, 향후 계획 등을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18번째 제정이 무산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순천을)-순천시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현안사업·국비 건의 및 지역 현안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울진)과 순천시(시장 허석)가 최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사업의 효과적·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해룡면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순천시 국·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과 해룡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토론 시간을 가졌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주말 섬진강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구례와 황전 지역 방문과 특별재난지

구 선포 건의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 법안 발의, 신대 유·정소년 수영장 건립 특별교부세 확보처럼 앞으로도 순천의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건의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공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 시점이다”며, “지역의 리더들께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 하동과 함께 순천의 황전면이 섬진강 수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